

국별 리포트

# 헝가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1
IV. 국제신인도 .....	13
V. 종합의견 .....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93천km <sup>2</sup>	G D P	1,290억 달러(2009년도)
인구	9.99 백만명(2009년도)	1 인 당 GDP	13,017 달러(2009년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Forint(Ft)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202.34(2009년도)

- 헝가리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부유럽 내륙국으로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점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반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면적과 9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OECD(1990), NATO(1999)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EU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4월 총선에서 사회당(MSZP)을 누르고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승리함에 따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을 하락추세가 이어졌으며, 2008년 10월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IMF,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 헝가리 정부는 구제금융 차관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긴축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실물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3.6	1.0	0.6	-6.3	-0.3
재정수지/GDP	-8.1	-4.4	-4.0	-4.0	-3.8
소비자물가상승률	3.9	7.9	6.1	4.2	4.4

자료: IMF 및 EIU.

####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긴축재정정책 시행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현

- EU에 가입한 200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8%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유로존 가입을 위한 강력한 긴축재정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포린트화 약세로 인한 외화표시 개인채무 누적, IMF 차관(2008년 10월 헝가리 정부는 IMF, EU, 세계은행과 251억 달러 긴급 구제금융 협정 체결)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됨. 또 헝가리 주요 무역상대국인 유럽국가들의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2008~09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6%, -6.3%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해외수요 위축,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3.8% 미만 목표치 달성(IMF 차관지원 조건)을 위한 긴축재정정책 지속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의 안정

- 2006년에는 헝가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9%로 이머징 유럽에서 비교

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식료품가격(11.5%)과 전기요금(24.6%)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9%로 급등하였음.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났으나, 동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및 식료품가격이 급락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1%로 둔화됨.
- 2009년에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하락(20%→18%)하였고 포린트화가 강세를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둔화됨. 에너지 및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각각 7.7% 및 6%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안정됨.
- 2010년에는 이머징 국가의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존재함. 그러나 헝가리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및 소비수요 위축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 수준 유지

- 2007년에는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의 실질적인 감축, 투자지출 축소 등의 긴축재정정책 시행과 더불어 간접세 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4%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이머징 유럽의 평균치인 0.4% 흑자와는 큰 격차를 보임.
- 2008년 하반기 IMF, EU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받음에 따라 재정건정성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이 시행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0%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2009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헝가리 정부는 IMF 및 EU와 합의한 2010년도 재정적자 목표치인 3.8%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공공부문 임금 삭감, 조세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8%를 기록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정책

### □ 은행부문의 과도한 외국인자본 의존도

- 2008년 10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초래된 헝가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유출 현상은 완화되고 있으나, 은행부문의 외국인자본 의존도가 높아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헝가리 제도권 은행 중 외국자본 소유 은행의 비율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기준 헝가리 8대 은행 중 헝가리 은행은 OTP은행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 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

- 헝가리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수입 비중이 2008년 기준 약 62%로(EU회원국의 평균 에너지 수입 비중은 55% 수준)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헝가리 최대 원유, 가스 생산업체인 MOL의 원유생산량은 2001~04년 연평균 10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연간 70만톤을 생산함.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생산 둔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에너지 수입수요는 높은 수준임.
- 또한 헝가리 에너지 수입의 약 70%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과도한 편임.

### □ 기업 경영여건 평가순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 경영여건 평가에서 헝가리는 2008년 41/181에서 2009년에는 47/183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여건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사업등록 절차, 투자자 보호제도 및 법규, 조세 부과수준 등에서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순위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나 여전히 상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고속런 저임금의 인적자원 보유**

- 헝가리는 영어, 독일어, 불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엔지니어링, IT 부문에 고속런된 노동력이 풍부하며 헝가리의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73,500포린트(270유로) 수준으로 서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중부유럽의 제조업 생산허브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

- 헝가리는 중부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7개국)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도로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이 양호하여 유럽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국기업 투자위축과 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으로 인해 연중 외국인직접투자가 65억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이 완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46억 유로(2007)→68억 유로(2008)→65억 유로(2009)

□ **IMF, EU 및 세계은행의 긴급 구제금융지원 이후 금융위기 완화**

- 헝가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10월 16일, 유럽중앙은행(ECB)은 헝가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50억 유로(73억 달러)의 긴급자금지원 계획(유로존 이외 국가에 대한 최초의 직접금융지원 사례)을 발표함. 2008년 10월 28일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및 세계은행(13억 달러)은 총 251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지원에 헝가리 정부와 합의함.
- IMF의 대기성차관(헝가리 IMF쿼터의 10배에 해당) 지원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 장기적으로는 투자신뢰 회복 및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 있음. 지원조건은 헝가리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및 외채잔액 감축 등임.
- 구제금융 지원 협정이 2010년 10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IMF 및 EU와 예비적 성격의 신규 자금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조건에 대한 이견(IMF 및 EU는 헝가리 정부의 금융세 도입에 반대)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됨.

- 헝가리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에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금융기관의 전년도 말 기준 자산 총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500억 포린트의 자산까지는 0.15%, 500억 포린트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됨)을 승인함.

**□ 2009년 7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총 4.25% 포인트 인하**

- 헝가리 중앙은행은 포린트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상승기조를 유지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권 투자자들의 급격한 디레버리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8.5%에서 11.5%로 3%포인트 인상하였음.
- 그러나 2009년 7월 국채 발행(5년 만기)에 성공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10개월 연속 총 4.25% 포인트 인하(현재 기준금리: 5.25%)하였음. 헝가리 정부는 2010년 7월 29일에도 약 2.6억 달러의 국채 발행(3년, 5년, 15년 만기)에 성공하였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2009년에 흑자로 반전**

- 2007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6.6%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이머징 유럽의 평균치인 1.2% 적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2008년에는 헝가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7.0%로 악화됨.
- 2009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긴축재정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데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가 0.3%의 흑자로

반전됨. 2010년에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가 -0.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 차관 수혜 및 국채발행에 의한 외환보유액 증가

- 헝가리 외환보유액은 2008년말 기준 336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의 2.7개월분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0월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후 2009년 7월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으로 10억 유로의 외화를 조달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2009년 말에는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4.5개월 수준으로 증가함.

□ 총외채잔액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 2005~06년 유동성 증가에 따라 저금리의 외화신용이 가능해져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증하였고, 2008년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및 포린트화 약세의 영향으로 총외채잔액이 1,645억 달러(GDP 대비 106.7%)에 달함.
- 2009년에는 환율이 안정되고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1,47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GDP 하락으로 인해 114.5% 수준으로 오히려 상승하였음. 2010년에도 총외채잔액 감소추세가 이어져 연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1,29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DSR은 30%에 달하는 수준

- 총외채잔액 증가, 포린트화 약세 및 국제금리 상승기조로 인해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05년에 30%를 넘어선 이후 2007년에 26.3%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30%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헝가리 정부의 외채상환부담은 높은 편임. 2009년 DSR은 29.7%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2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8,119	-9,081	-10,808	409	-308
경 상 수 지 / G D P	-7.6	-6.6	-7.0	0.3	-0.2
상 품 수 지	-2,573	277	-53	5,678	6,000
수 출	73,456	93,592	107,242	82,096	92,100
수 입	76,029	93,316	107,295	76,418	86,100
외 환 보 유 액	21,316	23,773	33,620	42,479	46,963
총 외 채 잔 액	107,677	138,338	164,510	147,680	129,562
총 외 채 잔 액 / G D P	95.4	100.0	106.7	114.5	105.1
D S R	32.5	26.3	26.7	29.7	26.9

자료: IMF 및 EIU.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2010년 4월 총선, 야당 승리로 정권교체

- 201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전체 386석 중 263석을 차지(전체 의석에서 3분의 2보다 6석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야당의 지지없이 단독으로 법률 통과 가능)하면서 청년민주동맹(Fidesz)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반면 사회당(MSZP)은 59석, 극우성향의 요빅당(Jobbik)은 47석을 차지함.
- 사회당(MSZP)은 유로화 조기 도입을 목표로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상승이 초래되었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저성장과 정부채무 누적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함. 결국 사회당(MSZP) 정부는 공무원 임금 삭감, 복지지출 삭감, 세금 인상 등의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IMF, EU 및 세계은행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사회당 정부에 대한 헝가리 국민의 지지가 급격히 하락함.

□ 청년민주동맹(Fidesz) 소속 슈미트 팔(Schmitt Pal)의 대통령 당선

- 2010년 6월 29일 헝가리 의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슈미트 팔 국회의장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263표를 득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슈미트 팔 당선자는 금년 8월 6일 라슬로 쇼욜(Laszlo Solyom)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됨.
- 슈미트 팔 대통령 당선자는 청년민주동맹(Fidesz) 출신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내각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임 라슬로 쇼욜 대통령은 청년민주동맹(Fidesz) 소속이었으나 중립적인 정치노선으로 청년민주동맹(Fidesz)과 갈등관계를 지속한 바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인종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나 사회는 안정상태 유지

- 헝가리 내에는 인구의 6~8% 정도인 60만~80만명의 집시가 존재하며 이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음. 집시는 대부분 단순노동을 제공하거나 헝가리 정부의 사회복지 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함.
- 헝가리 극우주의자들의 집시에 대한 인종차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간헐적 반정부 시위 발생

- 금융외환시장 불안 및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2008년 10월 IMF 등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 및 긴축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정부지출 감축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이 초래되어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함.
- 2009년 3월 헝가리시민혁명 기념일에는 부다페스트에서 총리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시위의 수위는 낮은 수준임.

### 3. 국제관계

#### □ 헝가리 정부는 2010년 7월 IMF와 차관지원 협상 중단

- 헝가리 정부는 2008년에 체결한 IMF 대기성차관 협정이 2010년 10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예비적 성격의 신규 IMF 차관지원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해왔으나,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 방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금년 7월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과 관련하여 EU와의 협의는 지속하겠다고 함.
- 헝가리 정부는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권고한 3% 재정적자 달성 시기를 당초 예정이었던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EU와 협의할 예정임. 또 헝가리는 2011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EU 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 2006년 중반 이후 슬로바키아와의 대립관계 악화

- 2006년 6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국민당(SNS)이 연정을 구성한 이후 슬로바키아 내 헝가리계 민족에 대한 차별이 초래됨에 따라 양국간 긴장이 조성되었음.
- 2009년 8월 21일 쇼요프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에서 개최된 11세기 헝가리국왕 성(聖)슈테판 1세 동상 공개행사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양국간 적대감정이 증가하였음. 이 사건 이후 주헝가리 슬로바키아대사관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함.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가 공적 업무시 슬로바키아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언어법을 승인하여 양국간 민족감정 대립이 고조되었음.
- 2010년 6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스메르당(Smer)이 승리하여 안 슬로타 총재가 총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슬로바키아측의 대헝가리 자극 요인은 감소한 반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계 타국민에게 헝가리 국적을 이중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슬로바키아 정부와 마찰을 초래함.

- 여권법이 통과하여 헝가리계 슬로바키아 국민의 50만명(주로 헝가리와 의 접경지역에 거주)이 헝가리 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슬로바키아 접경지역에 대한 헝가리 지배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슬로바키아 정부는 동 법안 통과를 반대함.

## VI.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0. 8)	C1 (2009. 9)
OECD	0등급 (2010. 1)	4등급 (2009. 1)
S&P	BBB- (2009. 3)	BBB (2008.11)
Moody's	Baa1 (2009. 3)	A3 (2008.11)
Fitch	BBB (2008.11)	BBB+ (2005.12)

- I.C.R.G : 78/140(2009.8)→57/140(2010.5)
- Euromoney : 64/186(2009.9)→64/186(2010.3)
- I.I. : 55/177(2009.3)→56/178(2009.9)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전액인수 가능, 한도 적용 없음
- Atradius: 최고 부보율 적용
-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구조는 점진적 개선

- 2005~06년 국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저금리 외화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총외채잔

액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과 200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각각 100% 및 106.7%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14.5%, 2010년 말 기준 전망치는 105.1%로 헝가리의 외채상환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나 헝가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채잔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외채상환 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헝가리 정부는 2008년에 지원받은 긴급구제금융(IMF, EU 등) 251억 달러 중 121억 달러를 2009년 상반기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출받았으나, 2009년 7월 국제금융시장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국채(5년 만기)를 발행하는데 성공하면서 구제금융 인출을 중단한 바 있음.

####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09년 11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23억 달러, 중장기 201억 달러로 총 223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920만 달러로 전체의 0.09%에 불과하여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국교수립: 1989년 2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나, 경제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되고 있음.
- 한국-헝가리 주요 협정체결 현황  
: 투자보장협정(1988), 과학기술협정(1989), 이중과세방지협정(1989), 사증면제협정(1991), 사회보장협정(2006)

#### □ 2009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전년 대비 증가

- 1989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36위 수출상대국, 57위 수입상대국이 되었음. 우리



## V. 종합의견

-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09년에는 전년 대비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음.
- 경상수지는 유로존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말 기준 GDP 대비 0.3%를 기록하며 흑자로 반전되었음.
- 헝가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IMF 등의 구제금융 지원 및 국채 발행 성공에 의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헝가리 외채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적자는 여전히 GDP 대비 4%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헝가리 정부는 2008년에 체결한 IMF 등의 대기성차관 협정이 2010년 10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예비적 성격의 신규 IMF 차관지원 협상을 재개해왔으나 지난 7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IMF와의 이견으로 헝가리 정부가 신규 자금지원 협의를 중단하여 국제관계가 악화되었음. S&P와 Moody's는 헝가리의 재정건정성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신용등급을 추가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조사역 최 희 정 (☎02-3779-6676)

E-mail : [heej\\_choi@koreaexim.go.kr](mailto:heej_choi@koreaexim.go.kr)